

【독서 추천】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부터 시작한 메일 메거진이 이번회로 기념할만한 100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께 무엇을 전할까 고민했습니다만, 이번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저의 애독서에 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메일 메거진을 시작하려고 생각한 계기는 국토교통성에서 근무할때 전 나가노시장인 와시자와 쇼이치씨와 명함 교환을 한후 보내준 메일 메거진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독서 소개는 재미있었고 같은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개할 책을 정리하려고해도 학창시절부터 10번 이상의 이사로 책을 잃어버려 과거의 기억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또한 나의 독서는 약간 역사 소설에 편차가 있지만 가끔은 재미있을것 같은 책을 찾아서 읽는 스타일이라 장르의 일관성은 없습니다.

먼저 젊었을때 읽었던 책 중에서는 시바 료타로의 『료마가 간다』 『언덕 위의 구름』 『유채꽃의 바다』 ...、야마오카 소하치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이 특히 재미있어서 열중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앞을 향해 전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서엔 역사 드라마 안에서 승자 패자가 각각의 입장이 있음에

관심을 가져, 흔히있는 승리자 쪽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뿐만 아니라 패자 쪽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타카하시 카츠히코의 『호무라 타츠』 『복수의 불꽃 북쪽의 빛나는 아테루이』 …, 아사다 지로의 『창공의 묘성』 『중원의 무지개』 …, 윤·치안의 『월드스완』 등 작품 모두가 훌륭했고 역사서로는 코마에 료의 『李世民(리세민)』 …, 이츠키 히로유키 『신란』, 야마모토 슈고로 『전나무는 남았다』, 시로야마 사부로, 사카이야 타이치, 쿠로이와 쥬고, 키타가타 켄조 등을 많이 읽었습니다. 최근에는 오카야마시 출신의 이소다 미치후미씨의 책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또한 가볍게 즐길수 있는 책은 이케나미 쇼타로의 『오니헤이 한카쵸 (오이헤이의 범죄수첩)』 …, 이케이도 준의 『변두리 로켓』 …, 사토 다카코의 『한순간 바람이 되어라』, 미야베 미유키, 아카가와 지로등을 읽으면 틀림없이 열중하게 됩니다.

그 외 기업소설로는 다카스기 료, 옛세이는 후지와라 마사히코, 나카니시 테루마사, 요로 타케시, 최근에 읽고 이거다라고 생각한것은 데구치 하루야키의 『일에 도움이 되는 교양으로서의 「세계사」』와 마루야마 순이치의 『자본주의 미래보고서』 등이 있고, 카케하시 쿠미코의 『지는 슬픔 이오토 섬 수석지휘관 쿠리바야시 타다미치』를 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카야마와 관계있는 역사물로서 아사노 아츠코의 『오카야마 번 이야기 키비 바람을 맞으며』, 시마다 나나에의 『우키타 히데이에의 소나무』, 쿠로카와 쥬조의 『교호(연호의 하나)에 피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골든 위크 동안 문득 저 자신의 독서 편력을 뒤돌아 보았습시다만, 역시 어중간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 좋은 봄날에 새로운 책을 손에 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